주기도와 십자가(III) - 잘라냄과 기쁨
(마6:9)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주기도와 십자가 세 번째 시간으로 '잘라냄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할 구절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핵심되는 구절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아도 하늘아버지의 존재 자체는 이미 거룩하십니다.
충분히 거룩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상관없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거룩함이 훼방될 수가 있고 그 거룩함이 사람들에 의해 모독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민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말할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나팔을 말할 때 그 나팔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등등, 그 부르는 이름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입에서 나올 때는 우리 마음이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야기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마음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한 거룩히 여김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나 자신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하늘아버지를 부를 때 어디서든 - 마음속으로 생각하든 말하든 -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세요.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나로 인해서 내가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거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만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하나만 하면 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이 얘기하는 모든 다른 복들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에서 거룩이란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카돗이라고 하는데, 이 카돗이라는 말은 칼로 베어서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칼로 딱 잘라내는 겁니다.
이 잘라낸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길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문제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해야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내 마음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자, 이름을 부르자마자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서 잘라내야만 됩니다. 칼로 베어내야만 됩니다.
뭘 베어냅니까? 내 마음이 함께 뒤엉켜있는 무엇인가를 칼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선민을 성도라고 합니다.
왜 선민이 거룩하냐 하면 지구 위의 많은 인류와 민족 중에서 잘라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 표면 위의 수억의 집들 중에서 잘라내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잘라낸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것, 저것, 수많은 일들을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 마음에서 무엇을 잘라내야 됩니까?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이 뒤엉켜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심거리와 일거리들을 칼로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문제를 안고 나와서는, 문제를 안고 나왔다기보다는 거의 문제에 묶여서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 묶여서 나와서 밤새 기도하면서 아주 마음 놓고 그 문제가 우리 마음을 물어뜯도록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밤새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의 기도를…
그러니 땅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사로잡혀있거나, 관심에 묶여있거나, 뒤엉켜있는 상태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선점된 - 이 세상일에 대해서 묶여버리고 세상의 일과 연합되어 있는 - 상태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지요?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향하여 연합하게 될 때 반드시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자로 지어진 거예요.
남자의 마음이건 여자의 마음이건 사람이면 그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여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마음을 다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네 개가 들어가는 회중전등이 있다고 한다면 세 개를 채워 넣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 둘은 말할 것도 없고 세 개까지 채워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만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만나는 일이 불가능해지면 우리의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 소용이 없고,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칼로 베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뒤엉켜있는 마음상태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잘라낸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아버지 그 존재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나아가게 될 때 잘라냄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

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이 붙잡혀 있는 모든 관심거리와 걱정거리들을 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식을 붙잡고, 재물을 붙잡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몸이 건강한 상태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 걷어 가십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 열 명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살이 될 정도로 마음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친구도, 아내도, 자기의 몸인 건강도 다 마찬가지로 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찢어내 가십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사람으로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한분만 딱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분만 딱 남았는데,
이제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지켜봅니다.
'자, 하나님 한분 남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는 걸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 거두어 가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 한분 남았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거룩히 여김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고 다른 것과 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하면,
욥이 자기 자식을 잃을 때 살이 찢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자식에 대해 죽을 때 욥이 당하는 실제적인 고통이 없이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성만찬 때 우리가 주님의 살을 기념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 살을 기념해서 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통당하실 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살이 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자식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떨어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복음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업문제 때문에 다급해졌다, 자식문제 때문에 보통 억눌려 있는 게 아니

다, 이럴 때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버랩 되면서 거룩히 여기심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룩해서 잘라낸다고 하는 의미가 십자가로 이 땅을 떠난다는 의미와 오버랩 되면서 겹쳐집니다.
겹쳐지면서 그 다음 구절로 나갈 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잘라내는 거예요. 베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생각되어질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그냥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잘라내는 것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부들이 냉장고에서 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래 놔둔 바람에 무 한쪽 귀퉁이가 썩었습니다. 그러면 다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잘라서 썩은 부분은 버리고 좋은 부분은 취합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일어난 구역을 잘라냅니다. 구분해서 출입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수도 구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수를 향해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 무를 잘라낼 때 버리는 쪽을 향하여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역이 걸린 마을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라서 구분은 하지만 그쪽을 향해 거룩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항상 잘라내서 좋은 쪽을 취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종종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눈치를 봐서 아빠한테 무엇을 사달라고 할 일이 있으면 “아빠가 좋아”, 밥 먹을 때가 되면 엄마가 밥 주는 줄 아니까 “엄마가 좋아”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물으면 기분 나빠 합니다.
누굴 애로 아느냐고,

저희 집 아이도 5학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4학년 때 선생님이 좋냐, 5학년 선생님이 좋냐?’
‘제발 좀 그런 질문 그만 하시라’고 짜증냅니다.
‘소고기가 좋냐, 돼지고기가 좋냐?’ 그러면 ‘제발 그런 질문 좀 그만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어른을 놓고 ‘소고기가 좋냐, 돼지고기가 좋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것 잘 안 물어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앙은 성숙할수록 이 질문에 민감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질문에 민감한 자가 신앙에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의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괜찮은 부분은 취한다', 바로 이게 그대로 질문으로 적용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십니다. "아, 너 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구나, 지금 나한테 돈 때문에 기도하러 왔구나!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돈이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너 돈 때문에 걱정하니? 돈이 좋아, 내가 좋아?"
다시 말해서 "돈 있으면 기뻐할래, 나 있으면 기뻐할래?"
둘 다 이건 안 통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지니라'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재물과 자식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할 지니라'

자식 때문에 걱정이 잔뜩 싸인 엄마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아, 너 자녀 때문에 기도하러 왔구나! 그러면 자녀가 좋아, 내가 좋아?'
'자녀 때문에 걱정하니? 자녀 일이 잘못되어서 걱정하니? 나는 하늘에서 너의 아버지로서 나한테 잘못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너는 내게 잘못된 일이 없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니?' 하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자식이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면 돈을 못 번 모든 슬픔과 억울함과 창피함을 서울대학에 합격한 그것으로 다 덮을 수 있어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데 돈이 많은 재벌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걸로 자식 대학에 못 들어간 것 다 덮을 수 있어요.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식이 좋아, 내가 좋아?" "돈이 좋아, 내가 좋아?"
사업 때문에 바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업이 좋아, 내가 좋아?"
"네가 하는 일이 좋아, 내가 좋아?",
"네 인생의 비전이 좋냐, 내가 좋냐?"
"네 인생의 비전이 다 좋아?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이 자꾸 불편해? 막혀서 괴로워? 나에게로 오는 길은 열려 있는데, 나한테로 오는 길은 십자가만 붙잡으면 뻥 뚫려 있는데? 그길로 오면서 기뻐할 수는 없겠니?"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십니다. “내가 좋아, 너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걱정거리가 좋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때 잘라서 취하는 거예요. 누굴 취해요? 하나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는 기뻐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좀 기뻐하려고 하고, 뭐 좀 안돼서 걱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게 좋아, 내가 좋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잘라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를 벌겠습니까?
지구 전체의 물질과 자원, 중동의 기름이나 아프리카의 금광이나 이 모든 것을 다해 물값과 나무값과 모든 것을 다해서 얼마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값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 위에서 얼마를 벌면 그 백분의 일이라도 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구 값의 억분의 일, 십 억분의 일을 벌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좋아?, 이 지구의 십억 분의 일도 안 되는 돈이 좋아?’ 하고 물어보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값의 십억 분의 일도 안 되는 그 재산을 벌겠다고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한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 내가 기른 지 몇 년 됐어요? 하나님아버지는 창세전에 나를 벌써 마음속에 잉태하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자식으로 선택하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몇 만 년이 될지 몇 억 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식이 문제라고 하나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 온통 우울함과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해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끝까지 자식을 붙잡고 있는 이게 모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자식이 우리 자식입니까? 그 재산이 우리 재산입니까? 이 몸이 우리 몸입니까?

우리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영자가 되어서 그걸 끌어당겨서 마음에 끌어안고 뒤엉켜서 온갖 더러움을 마음에 다 담은 채로 아버지하나님을 불러대고 있으니, 아버지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수로 거룩히 여김을 받겠으며, 아버지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서 모독당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상하게 배웠고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괴상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영

위해가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괴상한 방식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좋음‘, 좋다는 것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다, 오늘과 내일이 구분이 되지요. 더 좋은 쪽으로 구분되어야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지금보다 좋고, 이 상태와 구분되게 좋고, 썩은 무 잘라내고 좋은 부분 택하듯이 구분되게 좋고, 구분되게 좋고, 좋고, 좋고, 좋고 해서 더 이상은 좋을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놓고 선택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 자식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슬퍼할 겨를이 없고, 걱정할 겨를이 없고, 우울해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한…
어느 게 좋으냐고 물으실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한 쪽 잘라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은 좋고, 좋고, 좋고, 다르게 좋고, 다르게 좋아서, 최고로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거룩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좋지요, 그런데 자식보다 더 좋아요. 거룩하게 더 좋아요.
그러니 자식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면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도록 자식과 연결되어있는 고리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기뻐하려 하지 말고, 친구 때문에 애인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자식도 기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 기르며 자식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 날마다 우거지 상, 확률적으로 열 번 울고 한번 웃어요.
돈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 열 번 울고 한번 웃어요.
건강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 늙어가면서 내리 울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늙어가세요.
항상 기뻐하면서 자식 키우세요, 자식이 어찌 되던 간에, 자식이 어떻게 돼서 신경질이 팍 나면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자식이 좋아, 내가 좋아? 자식 때문에 기뻐할래, 나 때문에 기뻐할래? 나는 거룩한데, 좋고, 좋고, 다르게 좋고, 다르게 좋아서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게 바로 난데, 나 때문에 기뻐할래, 자식 때문에 기뻐할래?’ 물어보시니까…
‘네 일 때문에 기뻐할래, 나 때문에 기뻐할래? 무엇을 성취해서 기뻐하겠다고? 이 지구 위에서 네 인생 네 능력으로 무얼 성취하면 도대체 나를 가진 것만큼 기쁠 수가 있겠니?’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취해서 기뻐하려고 기쁨을 유보하지 말고, 나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써 기뻐하면서 성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에서 뒤엉켜있고 내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베어내는 겁니다, 자 베어냅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모든 걱정거리를 베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 베어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나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때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 하늘로 올라갔지요? 하늘로 올라가는 마음에서 모든 걸 다 베어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 '거룩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땅에서 떠난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 구절은 그 방향성을 따라 움직이려는 태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다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선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자식 걱정이 사라질 걸 알기 때문에 자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식을 잘라내겠습니다.
돈 걱정 있지만 잘라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없어서 생긴 걱정은 하나님 만나면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돈 잘라내겠습니다.'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적 내용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로 묶였지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잘라내는 행동을 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인 대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육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날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생의 첫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모든 일을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손 발 몸만 안 움직이면서 마음속에는 일 생각, 자녀생각, 사업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만나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만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눈 딱 떠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에덴을 보기 전에, 삶의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예배 드릴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베어져서 끊어져 나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이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거룩히 여김'은 베어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마음에 얽혀있는 것을 베어냅니다.
그렇게 베어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거룩한 기쁨으로 느껴지고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기쁘지? 돈보다 내가 기쁘지? 자녀보다 내가 기쁘지?"
"네, 근데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로 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라서 정말 괴상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 의해 끊임없이 모독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모르며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칼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베어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우울을 갖다 주는 모든 문제를 베어내게 하시며, 기쁨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